


 <b>국토교통부</b>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<b>보 도 자 료</b>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5. 12. 15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공간정보진흥과	담당 자	·과장 김경수, 사무관 유승경, 주무관 전미자 ☎ (044)201-3471, 3476	
보 도 일 시	2015년 12월 1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15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앱 23%가 공간정보 활용...“창의인재 양성한다”

공간정보 양성 포럼 개최, 인재수요 증가 대응 모색

- 스마트폰 앱의 23%가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등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공간정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가 「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포럼」을 16일(수)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에서 개최한다.
- 「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포럼」은 미래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‘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’에 대한 지난 1년간 추진 실적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.
  - 이 자리에는 산·학·연·관 관계자 및 공간정보를 전공하는 학생 등 약 200여 명 참석할 예정이다. 한국국토정보공사(LX) 공간정보교육원,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, 공간정보 특성화고 등에서는 인재양성 우수사례 및 발전방안 등을 발표한다.
  - 공간정보 산업체 관계자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한 관계 전문가들과 인재양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.

- 현재 공간정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자료로 활용되고 있다.
- 또한 다른 산업기술과 융복합하여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탄생시키고 있다. 스마트폰의 앱 중 약 23%가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통계는 시간과 공간에 기반을 둔 인간의 정보활동에서 공간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.
-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산업계에서는 공간정보와 다른 산업을 창의적으로 접목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창의인재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 국가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11개, 특성화고등학교 3개교, 공간정보 아카데미 1개 등을 통한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\*에 주력하고 있다
- \* 특성화대학원 석박사 과정 36명, 특성화고등학교 180명, 공간정보아카데미 수료생 60명 등
- 국토교통부는 이번 포럼에서 합리적인 인재양성 발전 방안들이 잘 정립되어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자적용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유승경 사무관(☎ 044-201-34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